

“세계유산마을 활성화 위한 지원센터 필요”

어제 세계자연유산 보전 및 활용 정책세미나 열려 특화사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행정 지원 필요 제안

제주도내 세계자연유산마을 활성화를 위해 (가칭)세계자연유산마을 지원센터 설립 필요성이 제안됐다.

12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도의회 제주지속가능발전연구회(대표 박호형 의원)와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공동 주최로 ‘세계자연유산 보전 및 활용(세계자연유산마을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고재량 제주생태관광협회 대표는 ‘세계자연유산마을 활성화 방안’ 주제발표에서 세계자연유산마을 활성화를 위해 브랜드 강화, 환경조성, 관광활성화, 주민참여, 마을특화, 마을연계, 세계유산교육, 토지활용 분야에 대한 추진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고 대표는 마을연계 추진 방안으로 중간지원조직인 (가칭)세계자연유산마을 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유산마을별 특화사업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유산마을 연계 프로그램 운영 및 세계자연유산 주민 참여 보전관리를 위해 행정, 시민단체, 주민, 전문가, 전문단체 등의 협력을 위한 협의체 구성 운영도 제안했다.

이수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세계자연유산 보전 및 활용 방안’ 주제 발표에서 세계자연유산마을을 수의 창출 방안으로 ‘슬로우 관광’ 추진을 제안했다. 체류·슬로우형으로 전환해 지역내 소비가 일어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박호형 의원은 “세계자연유산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을 세계자연유산마을로 조성했지만, 실제 세계

자연유산이 없는 세계자연유산마을이란 이름에 불과한 현실을 보면서 세계자연유산마을이 세계자연유산과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때”라면서 “세미나에서 제안해주신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 세계자연유산마을과 함께하는 세계자연유산이 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12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계자연유산 보전 및 활용 정책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020 제주애 빠지다 ⑩ 롯데관광개발



제주 드림타워 북항리조트 임직원들. 사진-롯데관광개발 제공

국내 대표 여행기업 제주서 새로운 비상

광화문시대 접고 분사 이전 드림타워 개장 준비 한창 법정관리 시련 딛고 극복 “일등 향토기업 오랜 꿈 실현”

롯데관광개발이 제주에서 제2의 비상을 꿈꾸고 있다.

롯데관광개발이 독자 운영하게 될 제주드림타워 북항리조트가 지난 5일 준공허가(사용승인)에 이어 연내 개장을 목표로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제주 드림타워 북항리조트는 2021년부터 5년간 7조5200억원의 경제효과와 5만6000명의 취업유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980년 9월 제주시로부터 공개입찰을 통해 노형동 사업부지를 매입한 이후 40년 만이자 2008년 11월 제주도 최고 높이 건축물로 확정된 이후 12년 만에 꿈을 이루게 됐다.

롯데관광개발은 준공에 앞서 지난 9월 21일 50년 서울 광화문시대를 접고 제주로 본사를 이전했다. 롯데관광개발은 제주 드림타워에 1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했다. 순수 국내 기업으로 제주에 투자한 최대 규모다.

50년 대한민국 대표 종합여행기업인 롯데관광개발이 제주에서 새로운 50년을 시작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지난 1971년 5월 아진관광(주)으로 출발한 롯데관광개발은 1978년 5월 롯데그룹 계열사 롯데관광교통(주)으로 상호를 변경했다. 이후 1986년 서울 아시안 게임, 1988년 서울 올림픽 관광상품 판매여행사로 지정돼 승승장구했다. 이어 롯데관광개발은 2008년 사업비 30조원으로

단군 이래 최대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민간기업으로는 최대 투자자로 참여하면서 대도약의 기회를 맞기도 했다.

하지만 민관협력체제를 통해 금융위기를 잘 극복하는 듯 했던 용산사업은 최대주주였던 코레일의 새로운 경영진에 개발사업에 무지한 낙하산 인사가 들어오면서 결국 파국을 맞게 되는 불운을 겪었다. 결국 2013년 3월 18일 용산개발 사업이 부도로 롯데관광개발도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최대 시련에 직면했다. 하지만 동화면세점 지분 매각 등 살을 깎는 자구 노력에 곧바로 법정관리를 벗어났다.

롯데관광개발에게는 1980년 공개입찰을 통해 확보한 제주 드림타워 북항리조트 사업이 마지막 기회로 남아있다. 엘리트 공무원 출신으로 나라경제에 기여한다는 일념 하에 1970년대 불모지나 다름없던 여행사업에 뛰어든 김기병 회장이었다. 여행사업의 꽃이라고 하는 복합리조트 사업은 김 회장에게는 평생 숙원사업이나 다름없었다.

40년 꿈을 이룬 롯데관광개발은 이제 제주에서 새로운 50년을 위해 도약 준비를 마쳤다. 제주에서 제2의 창업을 선언한 롯데관광개발은 앞으로 5년간 700만명 이상의 고급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드림타워 북항리조트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매출 1조 클럽’에 가입하겠다는 것이 롯데관광개발의 야심찬 목표다.

김기병 회장은 “개장하면 일자리 1등, 세금 1등의 일등 향토기업이 되겠다는 드림타워의 오랜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며 “인재양성은 물론 문화사업과 환경보호 등 각종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가장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대리기자 bigroad@ihalla.com

서귀포 단란주점 줄고 음식점 늘고

작년 대비 14%↓... 코로나 여파 서귀포지역 단란주점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12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10월말 기준 서귀포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단란주점은 모두 139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61곳에 비해 13.7%(22곳) 감소한 수준이다. 2018년엔 167곳에 달했었다. 뿐만 아니라 시

내중심가에서도 문을 열지 않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업소들도 심심찮게 목격된다. 영업을 하는 업소들 또한 매출이 줄며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흥주점은 253곳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서귀포지역 유흥주점은 2018년 250곳에서 2019년엔 254곳으로 소폭 늘었다. 일반·휴게음식점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10월말 현재 서귀포지역에서 영업하는 일반음식점은 모두 4556곳으로 집계됐다. 2018년 4234곳, 2019년 4450곳으로 매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휴게음식점 또한 2018년 984곳에서 2019년 1118곳, 2020년 1196곳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들어 서귀포지역에서 단란주점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시민들의 읍주패턴이 바뀐데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단란주점 이용을 줄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영종기자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 서귀포시 12월말까지 신청

서귀포시는 12월 31일까지 한라봉·천혜향 출하 전 품질검사 신청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한라봉·천혜향을 출하하고자 하는 농가는 사전 신고하고, 품질검사를 받은 후 출하해야 한다. 품질검사는 ▷조합원은 소속 농·감협 유통사업소 ▷비조합원은 농업기술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출하가능 여부는 검사기관에서의 당도·산도에 대한 검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상품 품질기준은 ▷한라봉의 경우 당도 12브릭스 이상, 산함량 1.1% 미만 ▷천혜향의 경우 당도 11브릭스 이상, 산함량 1.1% 미만이다.

출하 전 품질검사에 이행 농가에는 각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된다. 반면 검사를 이행하지 않고 만감류를 유통하다 적발될시엔 과태료 부과와 함께 3년간 농업 관련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주어진다. 현영종기자 yihyeon@ihalla.com

16일부터 동지역도 부동산 특별조치법 접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별조치법)이 동(洞) 지역에서도 시행됨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를 위한 보증서 발급 신청이 이뤄진다.

제주시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동 지역 부동산(농지와 임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보증서 발급 신청이 오는 16일부터 시작된다고 12일 밝혔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올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동안 한시 시행에 들어갔는데, 제주의 경우 읍·면 지역은 포함되지만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 지역은 법 적용 지역에 행정시라는 문구가 빠져있어서 제외되며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위정권 국회의원이 행정시 동 지역

을 대상지역에 포함시키는 부동산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9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동 지역도 포함됐다.

신청 절차는 동·리별 선정된 자격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을 방문해 신청하면 조치법 대상여부 검토와 보수료를 약정해 접수받고, 해당 토지에 대해 5명 이상(마을 4명·자격 1명)의 합동보증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확인서 발급 신청을 제주시로 하면 된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그랜드보청기

코리아세일페스타 할인행사
건강보험공단 제출 서류 업무 대행 해드립니다.

- 제품군1 - 70만원 이하 (40개 제품)
- 제품군2 - 70만원 초과 ~ 90만원 (105개 제품)
- 제품군3 - 90만원 초과 ~ 111만원 (125개 제품)
- 제품군4 - 111만원 초과 (37개 제품)

※ 제품군에 속하는 보청기 자유롭게 선택 가능합니다. **샵출들 흔저 전화 주십시오! 기다려주세요!**

보청기 가격의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세계최초 인공지능 총전식 귓속형 보청기
제주도내 전지역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총전식 보청기 60만원대부터
청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한라일보 서사라 사거리 동쪽 100m 행복방직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 소리와목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 왜 와이덱스 보청기 일까요?
-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처: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심의회번호 2018-GN1-11-0011

제주시청 CGV 광양사거리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심의회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 제주은행 ● 한국병원
시외버스터미널 오라마을 ● 국제보청기(국가보청기)
한라체육관 ● 실내수영장

대표 **임장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의료안내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323-중-3624호

동구치과 의원
DONGGU DENTAL CLINIC

일요일도 정상 진료합니다.

원장 **신동구**

중양신협(신속) 2층 동구치과 의원
● 제주우정서
제주대 ● 제주중앙여고 ● 제주지방법원

제주시 이도2동 2007-8
(중앙여고 입구 맞은편 중양신협 2층)

☎ 756-2833